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3. 12. 17. 11:28-

회중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이사야 40:3-5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53[새9]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동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

경배

김정준(1914-1981)

보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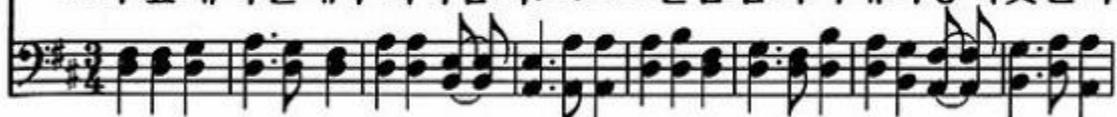
(요 4:24)

구원의 하나님: IR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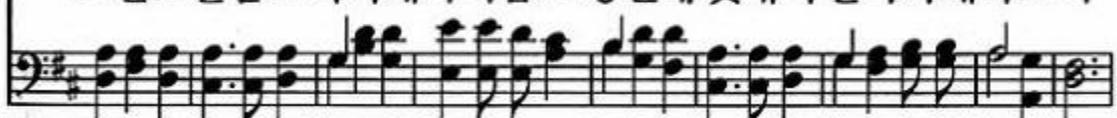
곽상수,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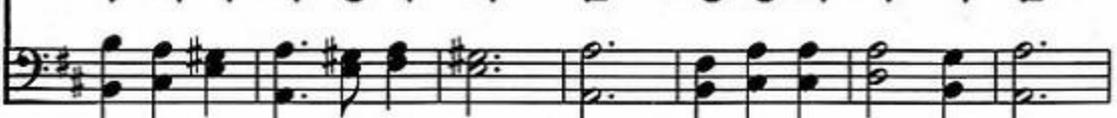
1.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 하나님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하시고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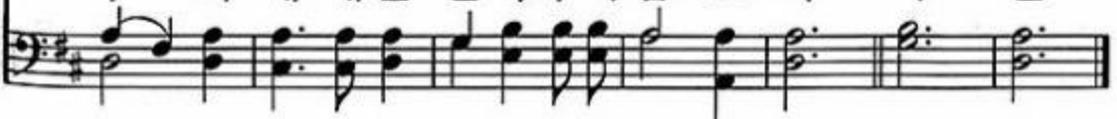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	와	성자	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찬송	과	영광	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권능	과	지혜	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의	사랑	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 리 예 배 를 받 아 주 시 으 소 서 아 멘



기도

교회공동기도

-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주소서.
- 우리 마음이 서로를 향해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 새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이인선 집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 교회학교 성경암송

교회소식

2023년 공동체 주제말씀: 예베소서 5장 14절 - 깨어나라!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2. 오늘 예배 후에 교회학교 분반공부, 식탁교제, 찬양연습이 있습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서 대표집사회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12.24)에도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5. 다음 주일 저녁 6시부터 성탄전야예배-식탁교제-친교시간(장기자랑/선물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6. 12월 25일 월요일(11:28) 성탄예배는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과 더불어 온가족예배로 드립니다.
7. 금주 수요일(12.20)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 성경모임이 있습니다.
8. 금주 수요일(12.20)에 노숙인 식사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교회 지하에서 음식준비, 6시부터 현장에서 배식이 있습니다.
9. 금주 토요일(12.23) 오전에 체코와 한국 목회자가 보흐니체병원을 방문하여 교우들을 대표해 환우들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 다음 대표기도 순서: **박상훈** 김명희 장정임 김영만 문수진 서규성 한수연 김지영 주승민 정양숙 배우리 여경화 정태훈 최소운 김동석 예창열 이인선

성경읽기

<누가복음 6:27-36>

-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설교 -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자비와 사랑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 통417[새295] 큰 죄에 빠진 나를 / 헌금봉사: 서현, 최은흠

(통일 417)

큰 죄에 빠진 나를

295

은혜와 사랑

Of Jesus' love that sought me

L. N. Morris, 1912

자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렘 3:18-19) SWEETER AS THE YEARS GO BY: 7.6.7.6.7.7.6. REF.

L. N. Morris, 1912

보통으로

1.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 사 그 넓은 품에
 2. 옛 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 날 때 그 은혜 받으
 3.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다 시 품으 신은혜는 저 바 다보다 깊고 저
 려고 큰 무리모였네 저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 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소리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후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Eb7→D7 Bb→A7 Fm→Em Db→C Bbm→Am

영광찬송 - 통105[새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통일 105)
 C. Wesley, 1744 보통으로 **구주 강림**
 Come, Thou long-expected Jesus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왕을 (눅 1:09) HYFRYDOL: 8.7.8.7.D.
 R. H. Prichard (1811-1887)

1. 오랫동안 안기 다리 던주 님강림하 셔서
 2. 모든백 성구 하려 고임 금으로오 시니

죄에 매 인백 성들을자 유얼게하 시네
 영원토 록우 리들을친 히다스리 시네

주는우 리소 망이요힘 과위로되 시니
 죄로상 한우 리마 음은혜로 써고 치고

오래기 다리 던 백 성많은복을받 겠네
 주의빛 난보 좌 앞 에이르도록하 소서 아멘

축도 - 설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참되게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